

## 한전, 카자흐 1억弗 변전소 사업 수주



한국전력,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종합상사 컨소시엄은 카자흐스탄 송전망공사(KEGOC)와 1억 달러 규모의 변전소 현대화 사업에 관한 계약을 맺었다. 계약자가 설계, 기자재 구매, 시공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방식(EPC)이며, 한전이 해외 송배전 설비를 EPC 방식으로 수주 하긴 처음이다.

KEGOC는 카자흐스탄의 전체 송전선로와 변전소의 건설·운영을 맡고 있는 최대 국영 전력회사로, 최근 낙후된 전력설비를 개선하기 위해 4억 달러 규모의 송전망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 컨소시엄은 내달부터 2013년 11월까지 카자흐스탄 17개 변전소의 노후 전력설비들을 새로운 설비로 교체하게 됐다.

## 대한전기협회 안호현 처장, 원자력표준 코디네이터 선임



### - 기술표준원, 원자력, 스마트그리드 등 6개 분야 표준 코디네이터 임명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쌍수) KEPIC처 안호현 처장이 지난달 25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있었던 '표준 코디네이터 출범식'에서 허경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원자력분야 표준을 총괄적으로 관리·조율하기 위한 표준 코디네이터로 선임되어 임명장을 받았다.

표준 코디네이터 제도는 국가 R&D 결과의 성공적인 산업화와 우리기술의 국제시장 진출지원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국가표준을 종합 관리·조율하고 우리기술의 국제표준 선점활동에 전력하기 위한 기술표준원의 금년도 역점사업으로써 원자력, 스마트그리드, 3D산업, 전기자동차, 클라우드컴퓨팅, 스마트미디어 등 6개 분야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원자력분야 코디네이터로 선정된 안호현 처장은 관련 분야 국제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표준 프레임워크 및 중장기 표준 로드맵을 개발하고, 우리 원천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및 새로운 시장 발굴을 위하여 기술별·국가별 차별화된 전략적 표준화 협력계획 등 국제표준화 전략도 수립한다. 또한, 국책 R&D 핵심기술을 시스템적으로 연계하여

표준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R&D 관련 참여자들과 협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분야	표준 코디네이터	소속
원자력	안호현 (KEPIC 처장)	대한전기협회
스마트그리드	김대경 (전력설비지능화연구센터장)	한국전기연구원
3D 산업	윤대원 (기술이사)	법무법인 다래
전기자동차	허 훈 (기계항공시스템공학부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클라우드컴퓨팅	이영로 (전문위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미디어	조용상 (표준품질개발부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전KPS, 나눔경영 실천 '앞장'



한전KPS(사장 태성은)와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소장 오광성, 이하 민생연)는 지난달 22일 한전KPS 본사 12층 대회의실에서 태성은 사장을 비롯한 최외근 경영관리본부장 등 한전KPS 관계자와 오광성 소장 등 민생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기업 지원 1차 업무협약 체결식' 을 가졌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원사업 공고 및 대상기업 신청접수 ▲지원대상기업 심사 및 선정 ▲선정기업 재정지원 및 컨설팅 지원 ▲사회적 기업 최종 인증 획득 지원 ▲사회적 기업 지원 활동 및 사회공헌관련 홍보 등이다.

한전KPS는 민생연, 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선정심사단을 구성해 적격심사, 서류심사, 현장 실사 등의 심사절차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2011년 내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써 최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현대중, 풍력발전기 유럽 첫 수출



현대중공업이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 유럽시장에 풍력발전기를 수출하게 됐다. 현대중공업(회장 민계식)은 핀란드 전력회사 피니시 파워와 총 16MW 규모의 풍력발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공동 수주한 현대중합상사와 함께 오는 2012년 4월 핀란드 남동부 하미나에 완공 예정인 풍력발전단지에 2MW급 풍력발전기 8기를 제작, 공급하게 되며 시운전도 담당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국내 기업 최초로 풍력발전의 본고장이자 세계 1위 업체를 비롯한 유수의 풍력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유럽시장에 첫 진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 3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풍력전사회(EWEA)'에서 핀란드 코트카-하미나(Kotka-Hamina)시와 풍력단지 조성 및 풍력발전기 40기 공급에 대한 양해각서를 교환한 바 있다.

## 두산중, 스코틀랜드와 풍력발전 협력



두산중공업(사장 박지원)이 스코틀랜드에서 풍력발전사업을 펼친다.

두산중공업의 영국 자회사인 두산파워시스템(DPS)은 스코틀랜드 투자청(Scottish Enterprise)과 함께 지난달 22일(현지시각), 영국 렌프루 두산밥콕 R&D센터에서 풍력발전 사업협력을 위한 투자발표회를 가졌다.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달 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DPS는 MOU를 체결하게 되면 스코틀랜드 해상풍력단지 조성 참여는 물론, 2020년까지 약 40GW의 신규 해상풍력발전이 건설되는 북해 시장진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DPS는 2013년까지 유럽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6MW급 이상 대형 모델을 개발하고, 2015년까지 실증을 거쳐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LS전선, 국내 첫 친환경 목재 드럼 사용



LS전선(대표 구자열)이 국내 전선업계 처음으로 제품 운송과 보관에 사용되는 드럼(drum)에 FSC 인증을 받은 목재를 사용한다.

LS전선은 친환경 제품의 생산이나 생산 공정의 친환경화, 포장 및 유통 단계의 친환경을 추구하기 위해 FSC 인증 드럼을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계기로 환경에 대한 까다로운 규제를 요구하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서 제품 수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드럼은 하중 문제로 인해 도입이 어려운 초고압 케이블 등을 제외하고 LS전선이 생산하는 모든 광케이블과 저압·중압 케이블, 기기선 등에 사용될 것이다.